

“농지 물려주고 노후는 든든하게”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입력 | 수정 2025.10.26 09:45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추진

고령농 안정적 은퇴·청년농 영농기반 확충 '두 마리 토끼'

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이양하면 은퇴직불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양된 농지는 청년농이나 전업농에게 임대·매도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 세대교체를 동시에 도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농의 실질적 은퇴를 돕기 위해 '일시지급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가입 연령에 따라 전체 직불금의 최대 70%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어 은퇴 직후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북지역본부는 예산 소진 전까지 해당 제도를 신청자에 한해 운영 중이다.

경북에서 농지를 이양한 한 고령 농업인은 "이제는 농사를 계속 짓기 힘들었는데, 매월 은퇴직불금을 받아 노후가 한결 든든해졌다"며 "자식들 부담을 덜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또 새로 농지를 확보한 청년농업인은 "은퇴직불사업 덕분에 영농 기반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선희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은퇴를, 청년농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정책"이라며 "농지 효율화와 세대교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